

## 확 달라진 상무지구·남악신도시 행정·금융타운 자리잡았다

‘상전벽해(桑田碧海)’. 요즘 상무지구와 남악신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실감하는 단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심 외곽에 위치해 번두리나 다름없던 상무지구는 공공청사, 금융기관, 방·의원과 식당, 대형 쇼핑몰까지 들어선 행정·금융·유통의 중심지로 변신했다.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논·밭은 아파트 단지과 공공청사로 채워졌고 자고나면 새로 짓는 건물 높이가 몰라보게 달라지기도 한다. 인구 증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무지구와 남악신도시가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이 속속 입주하면서 광주·전남의 명실상부한 ‘행정·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관공서 20곳·금융기관 15곳  
분양률 98%로 노는 땅 없어

논밭은 아파트·공공청사로  
자고나면 새로운 건물 쭉쭉

**광주 상무지구** 상업용지를 제외한 업무용 부지의 경우 관공서가 대부분 입주해 행정신도시의 면모를 확실히 갖췄다. 지난 1992년 이후 현재 분양률은 98%에 달한다. 광주 시청 옆 경찰청 부지만 남았다. 사실상 노는 땅이 없는 셈이다.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광주시청을 비롯 통계청, 체신청, 광주서부교육청, 광주지방법원등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20여 곳 이상의 관공서가 상무지구에 자리를 잡았다.

행정기관뿐 아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및, 은행과 보험기관 등 금융기관도 이미 15곳 이상 입주해 기존의 동구 금융모를 대신하는 신(新) 금융가가 될지 오래다. 증권 건설업체와 교수회관 등 민간 시설도 속속 입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 연말 삼성화재 건물 뒷편 15층 규모의 광주시 도시공사 건물이 준공되면 화정동에 위치한 도시공사가 입주하고 같은 건물에 광주시 콜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또 광주가정법원 등도 상무지구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관공서의 집적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상무지구 입주를 위해 빈 토지를 알아보는 몇몇 관공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공서 및 금융기관의 입주를 떠나 지적화적으로도 상무지구는 광주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남악신도시**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는 2005년 이전한 뒤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신중이다. “어제는 없던 건물이 오늘 생겨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마다 얼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새로 이전한 기관은 모두 27곳. 공공기관으로는 전남도청을 비롯해 전남도교육청·전남통계사무소·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문화산업진흥원·서해지방해양경찰청·전남개발공사 등이 입주를 완료했다.

행정기관과 함께 생활 광우은행 전남본부와 신한·국민은행도 들어서 금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와 외환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 등도 입주가 예정돼 있다.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주변에는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등도 빠르게 들어섰다.

남악신도시(362만9000㎡) 중 근린생활시설(100%), 중심상업(92%), 일반상업(80%) 등 “슬만한 땅”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 건물 착공만을 기다리고 있다.

7700명(2005년 6월) 수준이던 삼향면 인구는 2010년 현재 2만40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난데다, F1(포물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J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대 심리까지 확산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안희정 총남지사는 지난 10일 전남도청을 찾아 기자들에게 “전남도청이 이전해온 남악신도시는 도시 조성사업의 모범사례”라며 “총남도청 이전을 앞두고 박준영 전남지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을·임동률 기자 dok2000@



긴장속 애기봉 등탑 7년만에 점등 7년만의 애기봉 등탑 점등식이 21일 오후 서부전선 최전방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리골 애기봉에서 열려 성가대원들이 북녘하늘을 밝히는 등탑아래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연필뉴스

## 北 미사일 등산곳 추가 배치 軍 우발상황 대비 경계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폭 개편키로

청와대는 21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 관리실로 격상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센터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5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뒤 관계장관들과 함께 대북 대응 및 위기 대처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NSC에서는 대통령실 내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 관리실로 격상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위기관리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실 내에는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을 두기로 했다. 국가위기관리 비서관실은 위기 시 초기대응 지휘 및 평시 위기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정보분석 비서관실은 각종 상황 및 주요

격훈련 이후인 21일에도 서해지역에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을 계속 전개하고 있어 군 당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현재 서해 접적 지역 위주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해안포 사격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SA-2 지대공 미사일과 지대함 미사일을 서해안 등산곳 일대에 추가 배치했으며,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에도 계속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에 따라 북한군이 서북지역 뿐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동해안 등 ‘삼동격서’ 식으로 도발할 것에 대비해 우발 상황 대비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15K와 F-4E, KF-16 전투기가 공중에 대기태세를 갖추고,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독도함 등이 지원태세를 유지했다.

이날 북측지역과 3km에 불과한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해발 165m)의 등탑이 7년만에 불을 밝혔다. 점등식에는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해 해병대원 80여명과 구급차, 소방차, 대북대사관 레이다 등이 배치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F1 경주장 민간 매각 검토

도, KAVO 기능 초슬림화

전남도가 F1(포물리원)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동식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장은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F1대회부터는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기능을 초슬림화하는 한편, 경주장의 경우 장기적으로 제 3자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조직위원회가 KAVO 대신 F1대회 준비와 운영 등 핵심역량을 맡

는 방식으로 운영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KAVO가 갖고 있는 경주장 소유권을 비롯, 운영·관리권까지 제 3 기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주 본부장은 이어 “만일 제 3의 기업이 경주장을 인수하면서 인근 토지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경주장과 토지 개발권을 묶어 넘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F1 경주장의 경우 3400억원이던 애초 건설비용 외에 추가로 투입되는 1025억원의 일부를 KAVO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대회 운영경

비(390억원)를 비롯해 향후 6년간 대회 운영비도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능력으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경주장의 운영·관리 뿐만 아니라 삼포지구 개발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기초원서접수 12월 1일~17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코스피 2037

연중 최고치 또 경신

주식시장에 본격 산타렐리가 찾아왔다. 코스피지수는 북한 리스크를

딛고 하루 만에 반등하며 연중 최고점을 새로 썼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81포인트(0.83%) 오른 2,037.09에 마감,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가 기준으로 2007년 11월 7일 2,044.19 이후 3년 1개월만에 최고치

며, 이 기세라면 사상 최고치였던 2,064.85(2007년 10월 31일 종가)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지수는 8.72포인트(1.75%) 오른 506.67로 장을 마쳤다. 닷새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하루 만에 500선을 다시 탈환했다. /이은미기자 emlee@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234-3222 대표이사 최금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일본**  
겨울을 일본에서~  
★ 북큐슈 야마나미 통나무 펜션 (벳부족탕체험)  
4일 ₩ 429,000 출발일: 2/5, 8, 11, 13, 16, 20  
★ 구장산 스지유 마을 전통로칸 숙박  
4일 ₩ 569,000 출발일: 1/30, 2/3, 26  
★ 부산에서 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4일 (오사카, 와카야마, 쿠시모토, 미나미)  
4일 ₩ 1,090,000 출발일: 1/24

1월 한달만. 무안에서 떠나는 꿈!!  
3박 4일 **특가 ₩799,000**  
출발일: 1/6, 10, 14, 18, 22, 26  
★ P.I.C. GOLD OCEANA <슈퍼리아> ₩1,399,000~  
ROYAL TOWER <더릭스> ₩1,499,000~  
★ 광레오피레스 골프 54H ₩1,499,000~  
★ 광 고품격 골프 36H (NIKKO or HILTON HOTEL) ₩1,499,000~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 가이드 팁, 중식(골프-2일, 3일)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리 기입업체 \*공동주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정보원 기입(해상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평일(월~금)만, 기사(가이드) 봉사료, 신박관,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예약시 계약서(해상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